

중국현대문학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 연론편(閻連科)의 『킴킴한 낮, 환한 밤(速求共眠)』을 중심으로

이 혁**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速求共眠』의 자기반영적 서사와 매체 전환의 가능성
3. 『速求共眠』의 문화콘텐츠 전환 가능성
4. 『速求共眠』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연론편의 장편 『速求共眠』을 대상으로, 중국현대문학의 문화콘텐츠 전환 가능성과 그 실행 논리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작품은 “나와 생활의 비허구한 단락”이라는 부제를 내세우면서도 소설, 증언록, 인터뷰, 취조기록, 영화대본, 작가후기 등 복수의 서사 형식을 교차시킴으로써 허구와 비허구의 경계를 해체하는 자기반영적 텍스트를 형성한다. 본고는 먼저 작품 내부에 내장된 메타서사적 장치와 다성적 발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물, 사건, 공간, 문서 형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콘텐츠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주로 자기반영성, 명성 욕망, 혼종 서사 등 텍스트 내부의 미학적 특징을 해명하는 데 집중한 반면, 본고는 그러한 서사적 복잡성이 영화, OTT 시리즈, 오디오드라마, 디지털 아카이브, 전시형 콘텐츠 등으로 확장될 때 어떠한 매체적 재구성과 윤리적 조정이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3S1A5B5A17088466)

** 오산대학교 강사

요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速求共眠』의 문화콘텐츠화는 사건의 자극성을 재현하는 데 있지 않으며, 오히려 기록·증언·자기서사·영화화 욕망이 중첩된 서사 구조 자체를 재매개(remediation)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이 점에서 본고는 중국현대문학의 콘텐츠화가 줄거리의 산업적 활용을 넘어, 문학적 복잡성과 윤리적 긴장을 새로운 플랫폼 환경 속에서 재조직하는 작업이어야 함을 제시한다.

키워드 : 엔렌커, 『速求共眠』, 중국현대문학, 문화콘텐츠화, 각색, 트랜스미디어, 비허구 서사

1. 들어가는 말

중국현대문학의 문화콘텐츠화는 이미 고전문학의 영상화나 역사서사의 드라마화 단계를 넘어, 당대문학의 복합적인 서사 자원을 어떻게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 적응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¹⁾ 특히 최근의 문학 텍스트는 서사 자체가 영화, 다큐멘터리, 인터뷰, SNS, 기록문서의 형식을 흡수하면서 단일 장르로 환원되기 어려운 성격을 드러낸다. 따라서 오늘날 문학의 콘텐츠화는 단순한 ‘원작의 줄거리 이전’이 아니라, 장르적 혼종성과 매체적 자기인식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엔렌커(閻連科)의 『速求共眠』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매우 적합한 사례를 넘어, 방법론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은 작가 ‘엔렌커’

1) 전형준은 모옌(莫言)의 『붉은 수수밭(紅高粱)』과 위화(余華)의 『인생(活着)』의 영화화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서 문학과 영화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양 매체가 대체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규명하였다. 문현선은 류진윈(劉震雲)의 『1942년 돌아보며(溫故一九四二)』와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我不是潘金蓮)』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서사 변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중국문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송연옥은 중국 아동문학이 ‘읽는 텍스트’의 범주를 넘어 IP(Intellectual Property) 기반의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상품 등으로의 다각적 변용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자신을 서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고, 실존 영화감독 구창웨이(顧長衛), 실존 작가 장광저우(蔣方舟) 등을 이야기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문학 창작과 영화 기획, 현실 사건과 허구적 재구성이 뒤엉킨 서사 구조를 형성한다. 더욱이 작품 속에는 주인공 리쥙(李撞)의 사건을 둘러싼 인터뷰, 진술서, 취조기록, 영화대본 초안, 작가 후기가 층위별로 삽입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한 편의 소설’이면서도 동시에 ‘소설이 영화가 되려다 실패하는 과정’, ‘현실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 ‘작가가 서사를 소비하는 욕망’을 모두 담아낸다. 특히 『速求共眠』이 문화콘텐츠 연구의 대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작품이 단순히 영상화 가능한 사건을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텍스트 내부에 이미 영화화의 욕망과 실패, 기록의 형식과 조작의 충동, 실존 인물과 허구 인물의 경계 흔들림을 동시에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速求共眠』은 ‘원작(source text)’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매체 전환 조건을 사유하는 텍스트’이며, 따라서 이 작품의 문화콘텐츠화는 플롯의 이전 여부만을 따지는 전통적 각색론을 넘어 발화 구조, 문서 형식, 자기반영성, 실존성의 윤리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복합적 재매개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速求共眠』이 지닌 이 복합적 구조를 분석하여 다음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이 작품은 어떠한 방식으로 비허구와 허구를 교차시키며 자기반영적 서사를 구축하는가. 둘째,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물, 사건, 공간, 문체는 어떠한 콘텐츠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셋째, 문화콘텐츠화가 원작의 문제의식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적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설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速求共眠』의 서사 분석을 기본 방법으로 삼되, 각색 이론과 컨버전스 문화론, 재매개 이론을 보조 틀로 활용한다. 린다 허천이 말했듯 각색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매체 간의 차이를 전제로 한 반복과 재해석의 과정이며”²⁾, 헨리 젠킨스의 논의처럼 현대의 콘텐츠는 단일 텍스트보다 다중 플랫폼을 가로지르는

2) Linda Hutcheon, 『A Theory of Adaptation』, 2nd ed., New York: Routledge, 2013, 6-8쪽.

참여적 순환 속에서 더 큰 생명력을 획득한다.³⁾ 또한 볼터와 그루신의 재매개 이론은 새로운 매체가 이전 매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다시 불러낸다는 점을 강조한다.⁴⁾ 『速求共眠』은 이러한 논의를 실제 문학 텍스트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사례다. 중국어권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速求共眠』 연구는 대체로 네 방향으로 수렴된다. 첫째, 작품을 작가의 명성 욕망과 문학 제도 비판의 차원에서 읽는 논의가 있다.⁵⁾ 둘째, 허구와 비허구의 경계가 어떻게 흔들리고 서사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조직되는지를 분석하는 논의가 제기되었다.⁶⁾ 셋째, 작가의 은퇴 불안, 자기반영성, 메타서사 장치에 초점을 맞춘 연구⁷⁾가 이어졌고, 넷째, 작품 특유의 잡언(雜言)적 문체와 장르 혼합을 디지털 매체 감각과 접속시켜 해석하는 시각도 등장하였다.⁸⁾ 이들 연구는 『速求共眠』의 자기반영성, 혼종적 서술 방식, 작가-인물-독자의 관계 재배치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다만 기존 논의의 초점이 주로 서사미학과 작가론에 집중되어 있어, 작품을 영화·OTT·오디오드라마·전시형 아카이브 등으로 전환하는 구체적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어권 선행연구의 성과를 문화콘텐츠 설계의 논의로 확장하고자 한다.⁹⁾

3) Henry Jenkins,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21-24쪽.

4) Jay David Bolter and Richard Grusin,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Cambridge, MA: MIT Press, 1999, 45-50쪽.

5) 潘冬露, 「《速求共眠》的后现代“雜言”書寫」, 『內江師範學院學報』 제36권 제7호, 2021, 40-45쪽.

6) 劉紅森, 「謝幕的寫作或更大的舞台—論閻連科小說《速求共眠》的敘事藝術」, 『吉林廣播電視大學學報』 제9호, 2019, 112-113쪽.

7) 畢莉莉, 「虛構与非虛構之間—論閻連科小說《速求共眠—我与生活的一段非虛構》中的含混敘事」, 『河南工程學院學報(社會科學版)』 제20권 제2호, 2020, 73-77쪽.

8) 金春平, 「文學欲望、虛構邊界与修辭蠱惑—評閻連科長篇小說《速求共眠》」, 『南方文壇』 제1호, 2018, 115-120쪽.

9) 중국어권 연구는 『速求共眠』의 서사미학 자체에는 비교적 빠르게 반응했으나, 작품의 IP 운용이나 플랫폼 전략을 독립 주제로 삼은 논의는 아직 제한적이다. 산업 운영 차원의 논의로는 秦楓·周榮庭, 「網絡文學IP運營与影視產業發展」, 『科技与出版』 제3호, 2017, 90-94

2. 『速求共眠』의 자기반영적 서사와 매체 전환의 잠재성

『速求共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제에서 이미 드러난다. 작품은 스스로를 “나와 생활의 비허구 한 단락(我与生活的一段非虚构)”이라고 명명하지만, 그 진술은 전통적 의미의 르포르타주나 실록 서사와 다르다. 작중 화자 ‘엔렌커’는 자신의 명예욕, 영화 연출 욕망, 동료 예술가에 대한 계산과 조작 욕망까지 노출하며 텍스트를 진행한다. 이때 작품은 현실을 사실대로 옮기겠다는 선언과, 현실을 다시 이야기로 조작하려는 소설가의 충동을 동시에 드러낸다. 즉 『速求共眠』의 비허구성은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 아니라 “기록하려는 행위 자체를 폭로하는 서사 장치”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速求共眠』은 트루먼 커포티(Truman Capote)의 『인 콜드 블러드(In Cold Blood)』가 보여주었던 논픽션 소설의 계보를 연상시키지만,¹⁰⁾ 엔렌커의 경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 커포티가 실제 사건을 소설적 기법으로 재구성했다면, 엔렌커는 실제 인물과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 영화화하려는 욕망까지 서사 내부에 중첩시킨다. 다시 말해 『速求共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실인가’보다 ‘누가, 어떤 욕망으로 사실을 말하고 다시 꾸미는가’이다. 이러한 구조는 원작을 각색할 때도 핵심이 된다.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둘러싼 발화 구조, 기록의 층위, 서술자의 자기노출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가 곧 콘텐츠의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타서사적 충동은 작품 초반에서 화자 자신이 영화화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고백하는 다음 대목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나는 나 자신의 이른바 명성을 이용하여, 다시 한 번 리창(李撞)이라는 인물을 원형으로 삼아, 각본·연출·연기를 모두 직접 맡는 영화를 만들거다.”¹¹⁾

쪽 참조.

10) 1959년 캔자스의 홀컴마을에서 벌어진 일가족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쓴 논픽션 소설. Truman Capote, 『In Cold Blood』, New York: Random House, 1966.

이 인용문은 『速求共眠』의 핵심이 리쥬이라는 사건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사건을 다시 이야기로 가공하고 영상으로 전유하려는 화자의 욕망에 있음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화자는 현실을 기록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서사화하고 시청각화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재생산하려는 기획자로 등장한다. 따라서 『速求共眠』의 비허구성은 사실의 투명한 전달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실을 말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욕망과 권력관계에 의해 조직되는지를 폭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문화콘텐츠화의 관점에서 볼 때도 중요한 것은 리쥬 사건의 단순 재현이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싼 “서사 생산의 욕망”을 메타적으로 구조화하는 일이다. 곧 이 작품의 각색은 플롯의 충실한 복제보다, 화자-기획자-창작자라는 위치의 윤리적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방향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작품의 전반을 관통하는 정서는 ‘욕망’이다. 그러나 이 욕망은 단순한 개인적 욕망에 머물지 않는다. 작가 ‘엔렌커’가 품는 명성·영화·홍행의 욕망, 리쥬이 보여주는 생존과 사랑과 체면의 욕망, 리징(李靜)이 드러내는 계급 이동과 정체성의 불안, 구창웨이와 장광저우가 상징하는 문화 자본의 위치가 모두 뒤얽혀 있다. 이때 욕망은 각기 다른 사회적 위치에서 발생하며, 동시에 매체를 통해 증폭된다. 예컨대 리쥬와 리징의 관계는 단순한 노년 남성과 젊은 여성의 비정상적 정서로 환원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농민공과 베이징대 출신 연구생 사이의 계급 격차, 농촌과 도시, 육체노동과 지식노동, 저임금 노동과 문화 자본의 간극이 응축되어 있다. 작품은 이 불균형을 멜로드라마적 감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과 우스꽝스러움, 비극성을 동시에 유지한다. 바로 이러한 불균질성이 콘텐츠화의 핵심적인 콘텐츠 자원으로 기능한다. 오늘날 플랫폼 서사는 선명한 선악 대립보다, 관객에게 감정적 불편과 해석의 유예를 남기는 모호한 인물을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작중 화자가 영화산업을 향해 보이는 집착은 매체의식 자체를 노출한다. 그는 문학이

11) 閻連科, 『速求共眠: 我与生活的一段非虛構』, 南昌: 百花洲文藝出版社, 3쪽. “閃念”부분 “我要用自己所謂的名聲, 再次以李撞這個人物爲原型, 自編、自導、自演一部電影.”

아니라 영화가 더 큰 명성과 자본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실제 인물들을 영화의 부속품처럼 계산한다. 이 대목은 문학이 어떻게 시각매체를 욕망하는지, 그리고 콘텐츠 산업 안에서 텍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재가공되길 꿈꾸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러므로 『速求共眠』은 영화화의 ‘재료’이기 이전에, 이미 영화화 욕망을 비판적으로 내장한 ‘메타-콘텐츠 텍스트’라 할 수 있다.

『速求共眠』이 문화콘텐츠로 확장되기 쉬운 이유는 서사의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형식 때문이기도 하다. 작품은 장별로 회고 서사, 사건 서술, 인터뷰, 심문 조서, 영화 시나리오, 후기 등의 형식을 병치한다. 특히 ‘권종(卷宗)’과 ‘영화대본’ 부분은 텍스트가 이미 영상화 혹은 다큐멘터리화의 문법을 선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독자가 읽는 순간 장면을 상상하게 만드는 강한 시각성을 낳으며, 동시에 음성 기록이나 배우의 독백, 문서 클로즈업, 자막 처리 등 다양한 오디오비주얼 장치를 호출한다. 특히 판둥루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의 문체는 단순한 수다체가 아니라 댓글·독백·인용·진술이 뒤엉키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잡언”의 조직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速求共眠』의 형식 실험을 단지 난해성의 표지로 보지 않고, 상이한 매체 감각을 수용하는 개방형 서사 구조로 재평가하게 만든다.¹²⁾ 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문화콘텐츠 전환에서 큰 이점을 갖는다. 첫째, 하나의 장편소설을 플랫폼별로 서로 다른 형식의 서브텍스트로 분해할 수 있다. 둘째, 다성적 화자 구조 덕분에 오디오 콘텐츠나 다큐-픽션 형식에서의 전환이 용이하다. 셋째, 작품 내부에 이미 “영화대본”이 존재하므로, 메타시네마적 장치를 활용한 영화 또는 OTT 시리즈로 재구성하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린다 허천이 강조한 바와 같이 각색의 핵심은 원작을 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원작이 잠재적으로 품고 있는 다른 매체의 실행 가능성을 끌어내는 데 있다.¹³⁾ 『速求共眠』은 바로 그 잠재 가능성이 텍스트 내부에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작품

12) 潘冬露는 『速求共眠』의 문체를 후현대적 “雜言”으로 규정하면서, 텍스트 내부의 즉시적 논평과 자기조롱, 장르 혼합이 디지털 매체 환경의 소통 감각과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 潘冬露, 앞의 글, 40-45쪽.

13) Linda Hutcheon, 앞의 책, 8쪽.

은 영화화의 가능성을 단지 암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를 “좋은 영화의 토양”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속구공면』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훌륭한 영화는 아니지만, 훌륭한 영화가 성립될 수 있는 토대이자 자양이 된다.”¹⁴⁾

이 구절은 『速求共眠』의 문화콘텐츠화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곧 원작은 그 자체로 완결된 영화적 플롯이라기보다, 보다 우수한 영상 서사를 생성할 수 있는 서사적·정동적 토양으로 기능한다는 자기인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원작의 문화콘텐츠화가 “소설 내용을 그대로 시각화하는 작업”이어서는 안 되며, 작품 내부에 분산되어 있는 문서, 진술, 회상, 자기고백, 영화화 욕망의 층위를 새롭게 재배열하는 작업이어야 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速求共眠』은 충실한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매체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촉발하는 원형적 서사 자원에 가깝다. 따라서 장편영화는 사건의 응축과 감정의 집중에 초점을 맞추고, OTT 시리즈는 문서와 진술의 층위를 복수 회차 구조 속에서 분산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 『速求共眠』의 문화콘텐츠 전환 가능성

『速求共眠』의 문화콘텐츠 전환 가능성은 단순히 이야기의 자극성이나 사건의 극적 성격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작품의 진정한 확장성은 하나의 텍스트 내부에 상이한 매체 문법이 이미 잠재해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 인터뷰와 취조기록은 다큐멘터리적 리얼리티를 호출하고, 영화대본 형식은 시네마적 장면 구성을 예비하며, 작가후기와 자기고백은 메타서사적 층위를 형

14) 閻連科, 앞의 책, 62쪽. “在レストラン餐廳” 부분. “《速求共眠》的故事不是一部好電影, 可它是一部好電影的根基和土壤.”

성한다. 따라서 『速求共眠』은 단일 플랫폼으로 완결되는 서사라기보다, 매체별로 서로 다른 층위가 선택·강조·변형될 수 있는 분산형 서사 자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문화콘텐츠화의 첫 단계는 원작의 모든 요소를 보존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매체로 분산 가능한 핵심 서사자원을 추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速求共眠』의 경우 그 핵심 자원은 크게 세 층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실존 인물이 서사에 들어오는 충격”이다. 작가 엔렌커, 감독 구창웨이, 작가 장팡저우 등 현실의 인물이 허구 속에서 기능하는 순간 독자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재검토하게 된다. 둘째는 “리쑹 가족의 장기적 비극 서사”이다. 강간, 결혼, 빈곤, 유골 매매, 살인미수, 체포로 이어지는 서사는 인물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어두운 연쇄를 이룬다. 셋째는 “문학-영화-기록문서가 충돌하는 형식적 긴장”이다. 이 층위가 바로 원작을 단순 멜로드라마나 실화극으로 축소시키지 않게 만든다. 이 세 가지 자원은 서로 결합될 때 가장 강한 콘텐츠적 힘을 발휘한다. 예컨대 리쑹-리징 서사만 떼어내면 작품은 기괴한 중년 로맨스나 사회적 스캔들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작가의 메타서사만 강조하면 지나치게 지적이고 자기반영적인 예술영화가 되어 대중적 수용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화는 “인물 비극의 흡인력”과 “형식 실험의 지적 긴장”을 함께 유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표 1〉 『速求共眠』의 핵심 서사자원과 콘텐츠 자산

범주	핵심요소	콘텐츠 자산	전환 시 유의점
인물	엔렌커, 리쑹, 리징, 구창웨이, 장팡저우	실존-허구 경계의 긴장, 강한 캐릭터성	실명 사용 범위에 대한 윤리·법적 검토 필요
사건	강간-결혼-빈곤-영화기획-체포	장기 서사, 사회적 충격, 장르 혼합	선정성 과잉과 감상주의의 경계
형식	인터뷰, 조서, 대본, 후기	다큐-픽션·오디오·전시형 콘텐츠 적합성	매체별 문법의 재조정 필요
공간	허난 농촌, 베이징대, 샹그릴라, 파출소	대비적 미장센, 계급 차이의 시각화	공간을 상징으로만 소비하지 말 것

『速求共眠』의 인물들은 전형적 영웅이나 악인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모순이 강할수록 기억에 남는다. 작가 엔텐커는 문화자본을 가진 지식인인 동시에, 타인의 삶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소비하려는 기획자다. 리짱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며, 추악함과 순정, 폭력성과 인간적 비애가 한 몸 안에 있다. 리짱은 사회적 엘리트이지만 내면의 공허와 실존적 균열을 지닌다. 이처럼 인물 내부의 상반된 성격이 강하게 병존할 때, 캐릭터는 단순 서사의 도구를 넘어 독립된 IP 자산으로 기능한다. 오늘날 드라마, 오디오극, 웹기반 콘텐츠에서 강한 수용력을 갖는 것은 완결된 교훈형 인물보다 해석을 열어 두는 모순적 인물이다. 리짱은 그 점에서 매우 강력하다. 그는 농민공, 가장, 범 죄자, 연인, 채무자, 피의자라는 복수의 정체성을 오가며, 작품이 끝난 뒤에도 독자에게 하나의 판단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이 성격은 장기 시리즈에 특히 유리하다. 회차가 누적될수록 인물의 과거와 현재, 타인의 증언과 자기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캐릭터의 다층성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캐릭터 IP화는 무조건적 영웅화와 다르다. 리짱의 폭력성과 범죄 이력을 미화하거나, 리짱의 불안과 선택을 낭만화하는 방식은 원작의 윤리적 긴장을 훼손한다. 따라서 IP화의 핵심은 ‘호감도 높은 캐릭터 만들기’가 아니라 ‘해석 가능한 캐릭터 유지하기’에 두어야 한다. 이는 최근 시청각 서사의 인물 설계가 단순 동일시보다 복합 감정의 조직을 중시한다는 점과도 맞닿는다.¹⁵⁾

『速求共眠』의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허난의 농촌은 리짱 가족의 기억과 폭력, 관습과 가난이 응축된 장이며, 베이징대와 중관춘 일대는 문화자본과 도시 엘리트 질서의 상징적 공간이다. 샹그릴라 호텔, 일식당, 파출소, 연구원, 지하 숙소 등은 계급과 욕망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들이다. 이러한 공간 대비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즉각적인 미장센 효과를 낼 수 있고, 전시나 디지털 맵 기반 콘텐츠로도 쉽게 재구성될 수 있다.¹⁶⁾ 문체 역시

15) 동일시보다 복합 감정과 해석 가능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서사 경험 논의에 대해서는 Marie-Laure Ryan, 『Narrative as Virtual Reality 2: Revisiting Immersion and Interactivity in Literature and Electronic Medi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5, 97쪽 참고.

다중플랫폼 전환에 유리하다. 작가의 장광설은 독백극이나 낭독극, 오디오에 적합하고, 취조기록과 진술서는 다큐멘터리적 자막과 화면 분할에 적합하다. 영화대본 부분은 영상화의 뼈대를 직접 제공하며, 후기는 창작자 인터뷰나 메이킹 영상의 구성 논리로 전환 실행 가능성이 높다. 라이언과 머리가 지적하듯 디지털 서사는 서사정보를 하나의 직선적 통로에만 묶어 두지 않고, 몰입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층적 접근을 요구한다.¹⁷⁾ 『速求共眠』은 바로 이 다층성 덕분에 텍스트 외부로의 이동이 쉽다. 문화콘텐츠화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자체의 잠재성뿐 아니라 예상 수용자 층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速求共眠』은 첫째, 연론편과 문학과 중국현대문학에 익숙한 문학독자층에게는 자기반영성과 형식 실험 때문에 수용자 진입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사회적 사건과 실화를 선호하는 일반 시청자층에게는 리얼 사건의 강한 드라마성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셋째, 예술영화나 플랫폼 시리즈의 새로운 문법을 찾는 창작자와 기획자에게는 문서·시나리오·구술이 교차하는 구조 자체가 실험적 모델이 된다. 이처럼 『速求共眠』은 단일한 대중시장만을 겨냥하기보다, 문학 독자-예술영화 관객-플랫폼 시청자를 연결하는 중간지대 콘텐츠로 위치 지을 수 있다. 특히 최근 OTT 플랫폼은 범죄 실화, 다큐-픽션, 작가주의 시리즈, 문학 기반 프로젝트를 병행 편성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速求共眠』은 장르적 혼종성을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마케팅 단계에서는 ‘기괴한 실화’라는 자극적 문구보다 ‘문학과 기록, 영화 욕망이 충돌하는 다층 서사’라는 정체성을 일관되게 제시하는 편이 원작의 품격과 장기 IP화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

16) Marie-Laure Ryan, *Narrative as Virtual Reality 2: Revisiting Immersion and Interactivity in Literature and Electronic Medi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5, 126쪽.

17) Janet H. Murray, 『Hamlet on the Holodeck: The Future of Narrative in Cyberspace』, updated ed. Cambridge, MA: MIT Press, 2017, 98쪽.

4. 『速求共眠』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速求共眠』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은 “원작을 어느 플랫폼으로 옮길 것인가”라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원작 내부의 어떤 층위를 어떤 플랫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재매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장편 영화는 인물 관계와 정동의 압축에 강점을 가지는 반면, OTT 시리즈는 다성적 진술과 사건 파일의 분산적 배치에 적합하다. 오디오드라마는 발화와 독백, 심문과 증언의 긴장을 청각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와 전시형 콘텐츠는 이용자가 사건을 선형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조각난 자료를 능동적으로 탐색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速求共眠』의 문화콘텐츠화는 매체별 재현 방식의 차이를 전제로 한 선택적 확장 모델로 구상되어야 한다. 『速求共眠』의 1차적 콘텐츠화 방식으로는 장편영화와 OTT 시리즈가 가장 유력하다. 다만 두 형식은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한다. 장편영화의 경우 리쑹-리징 축을 중심 플롯으로 압축하고, 작가 엔렌커의 메타서사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혹은 중간중간의 보이스오버나 브레히트적 장면 전환 정도로 절제할 필요가 있다. 영화는 120분 내외의 러닝타임 안에서 감정의 집중도를 높여야 하므로, 리쑹이 지닌 폭력성·비에·우스꽝스러움을 한 인물의 복합성으로 응축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다.

반면 OTT 시리즈는 원작의 다성성과 문서 서사를 살리기에 더 적합하다. 예컨대 6부작 혹은 8부작 구조를 상정할 경우, 1-2부는 엔렌커의 영화기획과 리쑹 가족사의 과거, 3-4부는 리징과 베이징의 서사, 5부는 조사문서와 인터뷰, 6부 이후는 영화화의 실패와 현실의 붕괴를 병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각 회차 말미에 진술서, 조서, 이메일, 초고 대본 등을 시각적으로 배치하면 원작의 형식적 실험을 OTT의 회차 구조 안으로 옮길 수 있다. 또한 시리즈화에서 중요한 것은 선정적 사건을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발화의 충돌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누가 리쑹을 어떻게 기억하고 말하는가, 리징은 어떤 언어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가, 작가는 언제 타인의 비

극을 자기의 예술로 전유하는가를 회차별 질문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작품은 단순 실화극이 아니라, 오늘날 문학과 영상이 공유하는 서사 윤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다.

『速求共眠』은 오디오 기반 콘텐츠로도 높은 확장성을 가진다. 그 이유는 작품의 중요한 장면들이 실제 행동보다 발화와 진술, 독백과 회상으로 조직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창의 구술, 작가의 자기고백, 경찰의 심문, 리징과 장팡저우의 대화는 음성만으로도 상당한 긴장감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작품을 단순 낭독이 아닌 “다성적 다큐-픽션 오디오드라마”로 제작할 경우, 원작의 복합 형식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다. 오디오드라마의 서사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작가 엔렌커의 목소리를 프레임 화자로 두고, 각 장면에 리창, 리징, 경찰, 장팡저우, 구창웨이의 음성을 교차 배치한다. 둘째, 취조기록과 이메일, 메모는 별도의 음색과 효과음으로 구분하여 문서의 물성을 음성적으로 재현한다. 셋째, 허난 농촌의 생활 소리, 베이징 공사장의 기계음, 호텔 식당의 소음, 파출소의 형광등 소리 등을 사운드 디자인으로 층화하면 시각 없이도 강한 현장성을 전달할 수 있다. 이는 ‘텍스트의 재현’이 아니라 ‘청각적 재매개’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¹⁸⁾ 낭독극 역시 유효하다. 무대 장치보다 테이블 리딩과 프로젝션, 문서 이미지 투사, 배우의 낭독과 즉흥적 수행을 결합하면, 원작의 문서성과 자기반영성을 비교적 낮은 제작비로 구현할 수 있다. 대학 문예제, 지역문화재단, 소극장 프로젝트와의 연계도 가능하므로, 산업적 대형화 이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速求共眠』의 문화콘텐츠화는 영상과 음성에만 머무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작품의 미덕은 ‘서사 조각들의 병치’에 있으므로, 디지털 아카이브와 전시형 콘텐츠에서 더 풍부한 해석을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리창 사건 파일”이라는 이름의 웹아카이브를 구축해, 소설의 장면을 지도, 사진, 조서, 인터뷰, 타임라인, 영상 클립, 비평문으로 분산 제시하면, 이용자는 단일 플롯

18) 재매개 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문서, 음성, 화면의 상호전환은 단순한 매체 이동이 아니라 매체 감각의 재조직이다. Jay David Bolter and Richard Grusin, 앞의 책, 49쪽.

을 따라가기보다 스스로 사건을 탐색하고 조립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젠킨스가 말한 참여적 컨버전스 모델과도 부합한다.¹⁹⁾ 또한 허난 농촌과 베이징 대학가라는 대비적 공간을 활용한 전시 콘텐츠도 가능하다. 전시는 “문학-기록-영화의 경계”를 주제로, 작품 속 각종 문서 형식, 작가의 자기고백, 영화 대본 형식, 실제 공간 이미지, 음성 기록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역문학관, 대학 인문학센터, 현대문학 전시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교육적 효과도 크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학작품을 관광 자원으로 단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문학이 현실의 기록과 상상, 윤리 문제를 어떻게 복합적으로 다루는지를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표 2〉 『速求共眠』의 플랫폼별 문화콘텐츠화 방안

플랫폼	핵심 서사 초점	기대 효과	유의점
장편영화	리광-리징 축의 압축된 비극	강한 감정 몰입, 영화제·예술영화 시장 진입	메타서사의 과도한 축소 위험
OTT 시리즈	다성적 구조와 문서 서사	회차형 서사, 인물 심화, 글로벌 플랫폼 적합	실존 인물 처리의 윤리 문제
오디오 드라마	독백, 심문, 증언의 교차	저비용 고품질도 서사 구현	사건의 선정성보다 음성 연출의 절제 필요
낭독극/전시	문서성, 자기반영성, 기록 감각	문학관·대학·공공기관 연계 용이	과도한 설명형 구성의 경계
디지털 아카이브	인물·사건·공간의 데이터화	교육·연구·전시의 동시 활용	사실 검증과 개인정보 윤리 확보

『速求共眠』의 가장 큰 특징은 실존 인물과 허구 인물이 촘촘히 얽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콘텐츠화는 일반적인 소설 각색보다 윤리 검토가 더 중요하다. 첫째, 실명 사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영화

19) Henry Jenkins, 앞의 책, 8쪽.

나 드라마에서는 법적·사회적 과장을 고려해 일부 인물과 기관을 합성하거나 익명화할 수 있다. 둘째, 리창의 폭력과 리징의 선택을 자극적 이미지로 소비하지 않도록 서사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작가 엔텐커를 포함한 메타서사는 창작 욕망과 산업 욕망의 비판적 성찰로 처리되어야지, 단순한 유머 장치로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음의 자기고백은 실존 인물을 콘텐츠 재료로 소비하는 행위가 작품 내부에서 이미 윤리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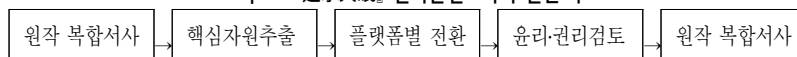
“모든 것, 곧 일체의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조작하고 소비하는 대상이 될 것이며, 나는 그것들을 명성에서 이익으로 팔아넘기고, 다시 이익으로부터 되사들여 또다시 명성에 팔아넘길 것이다.”²⁰⁾

이 대목은 『速求共眠』의 문화콘텐츠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윤리적 경고로 읽을 수 있다. 여기서 화자는 타인의 삶과 고통, 사건과 기억을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위한 자원으로 환원하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즉 이 작품은 실존의 서사화가 본질적으로 소비와 전유의 위험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작품 내부에서 이미 자의식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그러므로 『速求共眠』의 콘텐츠화는 단순히 선정적 사건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이 상품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드러내고 동시에 견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작품의 각색은 “충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의 윤리”를 전면화하는 비판적 각색이어야 한다. 『速求共眠』의 콘텐츠화는 일회성 대형 프로젝트보다 단계적 실험 모델로 추진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1단계는 텍스트 정분화와 인물·사건·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速求共眠』은 판본과 인용의 정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작 초기부터 학술 자문과 텍스트 감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저비용 파일럿 콘텐츠의 제작이다. 오디오 티저, 배우 낭독 영상, 사건 파일

20) 閻連科, 『速求共眠』, 앞의 책, 7쪽. “閃念” 부분 “所有的所有, 一切的一切, 他們都將成爲我的一次操弄和消費, 都將被我從名賣到利, 又從利贖回賣給名.”

전시, 쇼트폼 인터뷰 콘텐츠 등을 통해 어떤 서사 축이 수용자 반응을 가장 강하게 불러오는지 테스트할 수 있다. 3단계는 장편영화나 OTT 시리즈 같은 본편 제작이다. 이때 앞선 파일럿의 데이터를 활용해 어느 층위의 메타서사를 유지하고 어느 인물의 비중을 확대할지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 로드맵의 장점은 위험 분산에 있다. 『速求共眠』은 소재의 과급력에 비해 윤리적, 법적, 형식적 난도가 높은 작품이므로, 처음부터 대규모 상업 프로젝트로 진입할 경우 원작의 특징이 오히려 희석될 수 있다. 반면 단계별 실험을 거치면 작품의 문학성, 수용자 반응, 현실 인물 처리의 적정선, 플랫폼 적합성을 검증하면서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학술 연구와 산업 기획이 이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즉 대학 연구실, 문학관, 독립제작사, 공공문화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면 『速求共眠』은 단순 제작물이 아니라 연구-전시-교육-영상에 결합된 복합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 콘텐츠산업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듯, 문학 IP의 실질적 가치는 단일 영상화보다 전작권 개발과 다매체 소비 구조에서 극대화된다. 따라서 『速求共眠』의 경우에도 장편영화 단독 투자보다, 시리즈 개발·오디오 콘텐츠·전시형 기록물·교육용 텍스트를 병행하는 순환형 IP 전략이 더 적절하다.²¹⁾ 위의 단계별 로드맵을 순환형 IP 전략의 관점에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 1〉 『速求共眠』 문학콘텐츠화의 순환 구조



〈표 3〉 『速求共眠』 콘텐츠화의 단계별 실행 모델

단계	주요 과업	산출물	기대 효과
1단계	텍스트 정분화, 인물·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석본, 사진 연표, 공간 지도	원작 이해도 제고, 제작 리스크 감소
2단계	파일럿 제작 및 반응 테스트	오디오 티저, 낭독 영상, 전시 모듈	수용자층 확인, 핵심 서사 축 검증

21) 秦楓, 周榮庭, 「網絡文學IP運營與影視產業發展」, 『科技與出版』 제3호, 2017, 90-94쪽.

3단계	본편 제작과 후속 파생 콘텐츠 연동	영화/시리즈, 아카이브 웹페이지, 교육 자료	지속 가능한 IP 생태계 조성
-----	---------------------	--------------------------	------------------

『速求共眠』의 콘텐츠화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원작의 매체특정성이 다. 이 작품은 서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진술서, 조사기록, 작가후기, 인터뷰, 영화대본 초안 등 서로 다른 기호 체계를 병치함으로써 의미를 생산한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극영화의 플롯으로 환원할 경우, 원작의 핵심인 다성성과 자기반영성은 상당 부분 손실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콘텐츠화는 “무엇을 삭제할 것인가”뿐 아니라 “무엇을 다른 기호체계로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취조기록은 화면 속 자막, 음성 낭독, 분할 화면, 문서 클로즈업 등으로 재매개될 수 있으며, 작가의 자기고백은 보이스오버, 인터뷰 형식, 메타적 화면 응시 등의 장치로 전환될 수 있다. 결국 『速求共眠』의 성공적인 각색은 서사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문서와 발화와 자기의식을 다른 매체 감각으로 번역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 경험 중심의 트랜스미디어 설계 및 지역문화자원과 교육콘텐츠를 연계한다. 『速求共眠』의 트랜스미디어 전략은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보다 효과적인 모델은 각 플랫폼이 서로 다른 해석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는 리장과 리징의 관계를 중심으로 감정적 응축을 제공하고, OTT 시리즈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사건의 전후 맥락을 확장하며, 오디오드라마는 인물의 내면 독백과 심문 구조의 청각적 긴장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용자가 인물, 장소, 사건 문서를 자율적으로 탐색하며 서사를 재구성하도록 만드는 참여형 장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플랫폼은 동일한 정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지적·정동적 접근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원작의 해석 가능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速求共眠』의 콘텐츠화는 상업 영상물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본 작품은 허난 농촌과 베이징 도시공간의 대비, 계급 이동과 문화자본의 충돌, 실

존과 허구의 혼용이라는 문제를 통해 대학 교육, 인문학 프로그램, 문학관 전시, 공공문화 프로젝트와의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다. 예컨대 디지털 전시 콘텐츠는 작품 속 공간을 지도화하고, 사건 연표와 인물 관계망, 관련 문서 형식을 시각화함으로써 문학 연구와 대중 교육을 접속시키는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문학 작품을 단순 소비 대상으로 전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대문학의 사회적 의제와 매체적 실험을 공론장 속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더 높은 학술적·문화적 의의를 가진다.

5. 나오는 말

본고는 엔렌커의 『速求共眠』을 중국현대문학의 문화콘텐츠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문학 텍스트의 산업적 전환이 단순한 플롯 이전의 문제가 아님을 논증하였다. 『速求共眠』은 비허구와 허구, 기록과 소설, 실존 인물과 서사적 인물이 서로 교차하는 복합 구조를 통해, 이미 텍스트 내부에 매체 전환의 잠재성과 그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작품의 문화콘텐츠화는 줄거리의 시각화가 아니라, 다성적 발화 구조와 자기반영성, 그리고 실존의 소비를 둘러싼 윤리 문제를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서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 중국현대문학의 콘텐츠화 연구는 문학작품을 영상화 가능한 “소재”로만 다루는 차원을 넘어, 문학이 스스로 내장하고 있는 기록성, 수행성, 매체혼종성, 윤리적 긴장을 어떻게 재매개할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速求共眠』은 바로 그러한 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速求共眠』의 핵심 콘텐츠 자산은 리쑹·리징·엔렌커라는 모순적 인물군, 허난 농촌과 베이징 대학가의 대비적 공간, 그리고 문학과 기록문서와 영화대본이 교차하는 형식적 실험에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문화콘텐츠화는 줄거리 일부만 발췌하는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인물의 모순성과 서사 구

조의 충위를 동시에 보존할 때 비로소 원작의 힘이 살아난다.

셋째, 3장과 4장에서 제안했듯 『速求共眠』은 장편영화, OTT 시리즈, 오디오 드라마, 낭독극, 디지털 아카이브, 전시형 콘텐츠 등으로 다각적 확장이 가능하다. 이때 각 플랫폼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며, 특히 시리즈와 오디오, 전시형 콘텐츠는 원작의 다성성과 문서성을 살리기에 유리하다. 나아가 이러한 다중 플랫폼 전략은 현대문학을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참여적 해석의 장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速求共眠』의 문화콘텐츠화는 ‘문학의 산업적 활용’이라는 차원을 넘어, 현대문학이 내장한 자기반영성과 윤리적 긴장을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다시 조직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중국현대문학의 콘텐츠화 연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도 여기에 있다. 즉 문학작품을 영상화 가능한 소재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이미 품고 있는 매체 혼종성, 기록성, 발화 구조, 독자 참여 가능성까지 포괄하여 재매개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速求共眠』은 바로 그 전환의 필요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본고가 제안한 방안은 어디까지나 텍스트 중심의 설계 단계에 머문다. 실제 제작 단계에서는 판권 협의, 실존 인물의 초상권 및 명예권 문제, 중국과 한국의 심의 환경 차이, 공동제작 구조, 플랫폼 투자 논리 등 보다 복합적인 변수들이 개입할 것이다. 또한 본고는 『速求共眠』을 중심 사례로 삼았기 때문에, 옌렌커의 다른 작품군이나 중국 당대문학 전체와의 비교 연구는 제한적으로만 다루었다.

향후 과제는 두 방향에서 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옌렌커의 다른 작품들, 예컨대 『레닌의 키스(受活)』, 『사서(四書)』, 『해가 죽던 날(日熄)』 등과 『速求共眠』을 비교하여 어떤 작품이 어떤 플랫폼에 더 적합한지 유형화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실제 파일럿 콘텐츠를 제작해 수용자 반응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일이다. 문학 연구가 산업적 실험과 만나지 못하면 문화콘텐츠화 논의는 선언에 머물기 쉽고, 반대로 산업 기획이 문학 연구를 생략하면 원작의 복합성은 빠르게 손실된다. 따라서 『速求共眠』 연구는 텍스트 분석과 제작 실험이 병행되는 후속 연구를 요청한다.

參考文獻

- 阎连科, 『速求共眠: 我与生活的一段非虚构』, 南昌: 百花洲文艺出版社, 2019.
- 옌렌커 저, 김태성 옮김, 『깜깜한 낮, 환한 밤—나와 생활의 비허구 한 단락』,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22.
- 毕莉莉, 「虚构与非虚构之间——论阎连科小说《速求共眠——我与生活的一段非虚构》中的含混叙事」, 『河南工程学院学报(社会科学版)』 제20권 제2호, 2020.
- 金春平, 「文学欲望、虚构边界与修辞蛊惑——评阎连科长篇小说《速求共眠》」, 『南方文坛』 제1호, 2018.
- 刘红淼, 「谢幕的写作或更大的舞台——论阎连科小说《速求共眠》的叙事艺术」, 『吉林广播电视大学学报』 제9호, 2019.
- 潘冬露, 「《速求共眠》的后现代“杂言”书写」, 『内江师范学院学报』 제36권 제7호, 2021.
- 秦枫·周荣庭, 「网络文学IP运营与影视产业发展」, 『科技与出版』 제3호, 2017.
- Bolter, Jay David and Richard Grusin,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Cambridge, MA: MIT Press, 1999.
- Capote, Truman, 『In Cold Blood』, New York: Random House, 1966.
- Hutcheon, Linda, 『A Theory of Adaptation』, 2nd ed., New York: Routledge, 2013.
- Jenkins, Henry,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 Murray, Janet H., 『Hamlet on the Holodeck: The Future of Narrative in Cyberspace』, updated ed., Cambridge, MA: MIT Press, 2017.
- Ryan, Marie-Laure, 『Narrative as Virtual Reality 2: Revisiting Immersion and Interactivity in Literature and Electronic Medi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5.
- 전형준, 「문학과 영화의 상호성에 대한 연구: <붉은 수수밭>과 <인생>의 영화화를

- 통해], 『중국문학』 제53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07.
- 문현선, 「劉震雲 소설의 서사 변용 연구 - <溫故一九四二>와 <我不是潘金蓮의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제52권, 한국중국소설학회, 2017.
- 송연옥, 「확장하고 있는 중국아동문학 - 중국의 '범엔터테인먼트'와 아동문학의 크로스오버를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제63권, 한국중국소설학회, 2021.
- 이 혁, 「'허구'와 '비허구'의 경계 - 연론키(閻連科)의 『깜깜한 낮, 환한 밤(速求共眠)』를 중심으로」, 『문화경영·기술』 제2권 제2호,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2022.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al contents of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 Focusing on the Yan Lianke’s novel named Blind Date, Clear Night

Lee, Hyuk

This study examines Yan Lianke’s *Suqiu Gongmian* as a case study for the cultural content adapt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The novel is significant not only because of its unusual plot but also because it already contains multiple media forms within the text itself, including testimony, interrogation records, screenplay fragments, interviews, and authorial afterwords. For that reason, the work should be understood not merely as a source text for adaptation but as a self-reflexive narrative that reflects on the very desire for adaptation. This study first analyzes how the novel destabilizes the boundary between fiction and non-fiction through the author’s self-insertion and the incorporation of real cultural figures. It then identifies the novel’s core content assets: contradictory characters, layered documentary structures, and sharply contrasted rural-urban spac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proposes several adaptation models, including feature film, OTT series, audio drama, stage reading, digital archive, and exhibition-based transmedia projects. The paper argues that the successful adaptation of *Suqiu Gongmian* depends less on reproducing its sensational events than on preserving its polyphonic structure, ethical tension, and meta-media consciousness. In this sense, the cultural content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should be understood as the remediation of literary complexity rather than the mere industrialization of plot.

Key words : Yan Lianke, *Suqiu Gongmian*,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cultural content adaptation, adaptation studies, transmedia storytelling

투 고 일 : 2026. 4. 10. / 심 사 일 : 2026. 4. 15. ~ 2026. 5. 15. / 게재확정일 : 2026. 5. 20.